

5월 1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1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연준 성장률 하향’ 뉴욕 하락..다우 0.6%↓</p>	<p>뉴욕 증시는 장 초반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자본확충 소식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과 유가 상승에 힘입어 금융주와 상품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제회복자문위원회에서 "미국 경제가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경제 낙관론을 지지했음. 그러나 오후들어 보험권으로 밀려나는 등 상승 탄력을 잃기 시작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권으로 투항했고 그간 랠리를 주도했던 금융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되었음. 연준은 이날 공개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5%~-1.3%에서 -1.3%~-2%로 하향 조정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8,422.04로 전일대비 52.81포인트(0.62%)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27.84로 6.70포인트(0.39%) 내렸으며,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903.47로 4.66포인트(0.51%) 밀려났음.</p>
<p>연준, 경제성장률 하향 -국채매입 확대 시사</p>	<p>연준이 공개한 4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5%~-1.3%에서 -1.3%~-2%로 하향 조정했고 연간 실업률 전망치는 종전 8.8%에서 9.6%로 높여잡았음. 연준은 올해 하반기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연준의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기업들의 매출과 생산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음. 실제로 2분기 경기후퇴(recession)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음.</p> <p>그러나 연준은 경제가 올해 보다 깊은 침체를 겪은 뒤 내년에 가서야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고, 또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음. 한편 일부 연준 위원들은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국채 등 장기자산 매입의 확대를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연준은 그간 취한 정책적 조치들의 효과를 지켜본 뒤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입 규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p>

제목	주요 내용
유가 62弗대로 상승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와 달러 약세, 급등 재연 가능성에 대한 잇단 경고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62달러대로 올라섰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94달러(3.2%) 오른 62.04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11월10일 이후 6개월만에 최고치임.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주(15일 마감) 원유 재고가 전주대비 210만배럴 감소했다고 밝혔고 이는 에너지 정보 제공업체 플랫폼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150만배럴을 넘어선 감소폭임.
10대그룹 투자외면..유보율 900%대	2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올해 3월 말 기준 유보율은 945.54%로 1년 전보다 60.80%포인트 상승. 이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10대 그룹 계열사 중 작년과 비교 가능한 65곳이 분석대상으로 했음.
해외 주식형펀드 이틀째 자금유입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전일대비 935억원 증가한 139조3,450억원을 기록. 국내주식형은 909억원 증가한 84조5,875억원을,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은 26억원 늘어난 54조7,575억원을 기록. 설정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순자산액은 국내외 모두 증가. 전체 주식형펀드 순자산액은 전일대비 2조8,715억원 늘어난 104조5,062억원을 기록했음.
해운업계 "내년 이후가 본격적인 회복기"	작년 말 700선에 머물렀던 발틱해운거래소 건화물운임지수(BDI)가 최근 2600선까지 회복하자, 해운업계 일각에서 해운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음. 올해 초 773으로 시작한 BDI는 지난 19일 2,644를 기록.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20일 부산광역시 부산항에서 열린 한진해운 신항만 개장식에서 "짐이 좀 늘고 있는데 오는 3~4분기에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